

신제품 코너

롯데햄·우유

불고기 프랑크

“불고기 프랑크”는 우리 정통 불고기맛을 살린 제품으로 신선한 돈육과 계육에 불고기 양념을 가미하여 구수하고 향긋한 맛이 특징. 석쇠에 구워먹거나 뜨거운 물에 데워내면 소세지 특유의 쫄쫄한 맛을 즐길 수 있다.

240g 1천2백원, 480g 2천3백원



켄터키 비엔나

“켄터키 비엔나”는 구수한 맛의 푸짐한 소세지로 칼집을 내어 살짝 굽거나 더운물에 그대로 데워들면 비엔나 소세지의 진미를 느낄 수 있다. 꼬치에 끼워 산적으로 또는 베이컨 말이등 여러 용도로 사용.

희망소매가 170g 1,000원, 300g 1,700원



요정핑크 소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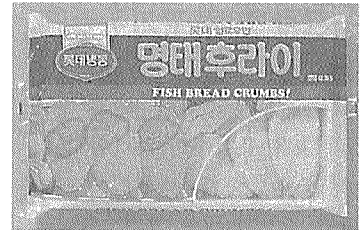
계맛살의 향긋한 맛이 함유된 “요정핑크 소시지”는 어린이 영양간식으로 적합한 고급 스틱소세지. 어육만으로 된 신선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자매품 “아기공룡 둘리”와 함께 시판중이다.

희망소매가 60g 320원

명태 후라이

북태평양의 싱싱한 명태살(명태 62.98%)로 만든 “명태 후라이”는 신선하고 담백한 맛을 가진 수산물 냉동제품으로 5월 26일 시판. 밥반찬, 도시락 반찬으로 좋으며 튀기거나, 후라이팬에 구워먹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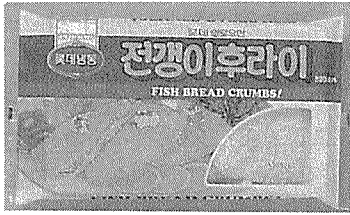
소비가 가격은 250g에 1,100원



전갱이 후라이

남해안에서 잡은 싱싱한 전갱이살(전갱이 63.4%)로 만든 “전갱이후라이”는 독특한 맛과 바다의 향기를 지닌 수산물 냉동제품으로 5월26일 시판. 원어의 형태를 거의 살린 “전갱이 후라이”는 밥반찬으로 튀기거나, 후라이팬에 구워먹어도 좋다.

소비자 가격은 270g에 1,100원



제일제당

하니소시지

제일제당(대표 安是煥)은 치즈가 11% 가미된 혼합소시지를 개발, 시판. 하니소시지는 선상 연육을 사용해 쫄깃쫄깃한 맛을 내주어 어린이들의 영양 간식에 좋다고.

동그랑땡, 불고기후랑크

육가공류 성수기인 3월을 맞아 우리 고유 음식중의 하나인 동그랑땡을 상품화한 「백설햄 동그랑땡」과 불고기 맛을 살린 「백설햄 불고기 후랑크」를 새로 선보였다.

백설햄 동그랑땡은 고기를 주원료로 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난 뿐 아니라 마늘, 파, 생강 등 우리 고유의 천연양념을 사용하여 우리 입맛에 맞으며, 돈육 소세지이면서 가격도 매우 저렴한 것이 장점.

백설햄 불고기후랑크는 최근 수요신장이 두드러진 「불고기햄」에 이은 불고기시리즈 제품으로 불고기맛을 살렸을뿐 아니라, 육피가 살아있어 햄과 같은 조직감

을 느낄 수 있으며 가격 부담이 적은 실속있는 제품이다.



진주햄

백점 소시지 등 개발

진주햄은 최근 어육연제품인 백점 소시지와 오징어맛살. 그리고 축육제품인 아이큐큐센터키소시지를 각각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로 내놓은 백점소시지는 연육 56%와 돈육 14%가 들어있으며 특히 마가린이 9%나 함유되어 있어 부드럽고 독특한 맛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즉석 또는 후라이하여 영양간식이나 사라다 샌드위치 도시락 반찬용으로도 좋다는 것.

2백60g짜리 소비자값은 9백50원.

오징어맛살은 싱싱한 명태살에 천연오징어살이 5.6%가 들어있어 맛이 좋으며 각가지 요리의 재료로 적합하다고.



펑귄

룩키 후랑크소시지

펑귄(대표 黃鳳燮)은 「룩키 후랑크소시지」를 개발, 시판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룡키후랑크는 가토육(家兔肉) 40.18%, 돼지고기 28.1%, 닭고기 12.05% 및 대두단백, 전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가격은 2백65g에 1천2백원.

